

“통합은 지역산업 확장·일자리 창출 계기”

■ 광주전남 통합 직능별 시민공청회- 경제·산업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산업계-경제단체-농업인 등 100여명 참석
제조업 데이터화·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지역산업 규모 확장해야
강기정 시장 “좋은 기업·양질 일자리로 청년이 머무는 특별시로”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 산업의 확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6일 광주 창업거점인 북구 스테이지(빛고을창업스튜디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경제·산업 분야 직능별 시민공청회’를 열고 경제단체, 산업계, 농업인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시가 자치구 순회 권역별 시민공청회와 병행해 분야별로 추진하는 직능별 의견 수렴으로 행정통합이 지역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 산업계, 경제단체, 농민단체, 광주연구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경과, 특별법 주요내용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의견 청취 시간에는 경제·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경제단체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투자유치 여건 개선과 기업 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제조업의 데이터화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해 행정통합의 효과를 키우고 지역 산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의 광역 단위 정책 추진으로 인한 판로 확대, 농가 소득 증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광주지역의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전남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합치는 것이 아닌 산업과 일자



리, 인구구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기회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강기정 시장은 “일 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키우는 데 연간 5조원을 쓸 수 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며 “통합으로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청년이 머무는 특별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민주주의로 화려하게 등장한 광주가 부강한 광주로, 통합 이후 부강한 광주전남으로 나아가도록 현장의

기대와 제안을 반영해 실질적인 통합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통합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권역별 시민공청회와 함께 보건복지, 여성·아동, 교육·청년, 문화체육 등 분야별 직능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통합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길 기자

‘AI 뇌’ 광주가 선점한다... 국가 NPU 본격화

GPU 학습 넘어 ‘NPU시대’... 저전력·고효율 국산기술 주도
국가 AI 데이터센터 시너지... 기업·인재 AI 3대 강국 도약

사람의 뇌처럼 정보를 학습하고 처리·명령하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핵심시설 ‘국가신경망 처리장치(NPU)컴퓨팅센터’를 광주에 구축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국가 NPU 컴퓨팅센터

NPU센터가 설치되면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심의 국가AI데이터센터와 맞물려 광주는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을 쥐게되며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실현의 거점도시로 도약한다.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NPU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역예산 6억원은 확보했으며 국가 NPU센터 규모를 비롯해 설립에 필요한 종예산, 활용 방안까지 도출해 광주에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NPU는 수많은 신경세포 등을 통해 정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사람의 뇌처럼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의학·법학·자동차·재난·재해·공공 안전 등 사회 곳곳의 축적된 데이터를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로봇 청소기·지능형 카메라·산업·물류 등 인공지능 제품에 학습시켜 사람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값을 도출한다.

AI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거대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학습’ 단계에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는 세계적 흐름속에서 NPU센터 구축은 GPU 컴퓨팅센터와 함께 AI 기술 전환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또 광주 NPU센터는 GPU컴퓨팅센터에 비해 저전력·고효율의 강점이 있다.

NPU센터는 GPU보다 전력 소모가 최대 3배 이상 적고 불필요한 회로를 제거하고 연산 기능에 집중해 효율이 높으며 배터리 수명이 중요한 스마트폰·노트북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NPU집도 현재 국내 생산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러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조달까지 가능하다.

GPU 시장은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장악하고 있지만 NPU는 광주에 정착한 팹리스 기업 에이즈랜드,

뉴스

에이즈랜드, 퓨리오사AI, 리벨리온 등이 고도화와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중 퓨리오사는 NPU칩 수만 장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광주 NPU센터에 공급되면 국산 기술력으로 인공지능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광주시는 NPU센터 초기에는 NPU 70~80%, GPU 20~30% 비율로 약 1만 장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NPU센터가 광주에 구축되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 집적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

이는 지난 2023년 10월 광주 북구 오룡동에 문을 연 국가AI컴퓨팅센터를 통해 입증됐다.

현재 A100 796장, H100 880장, T4 384장, IPU 128장 등 초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2500여장이 탑재된 인공지능 제품에 학습시켜 사람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값을 도출한다.

컴퓨팅자원 제공은 2207건이며 인공지능 학습모델 개발·개선 2081건, 상용화 328건, 국내외 논문 게재 611건 성과를 거뒀다.

현재 160개 기업이 광주창업센터와 광주과학기술원 등에 동지를 틀었으며 33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인재 채용 640여명 등 2173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거뒀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광주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시중가 300여만원의 3%인 10만원에 H100 GPU 1장을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순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NPU 센터를 비행기에 비유하면 NPU는 효율적인 장거리 순항 엔진, GPU는 복잡한 이착륙과 조종을 담당하는 보조 엔진과 같다”며 “세계적 추세는 NPU와 GPU의 조화”라고 밝혔다.

광주시, 청년 커리어 첫걸음 ‘드림청년’ 모집

26일~2월13일 접수... 미취업 청년 대상 실무 일경험 제공

지역 기업·공공기관 261곳 참여...생활임금 수준 급여 지원

집중참여형(주 40시간, 3개월)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하게 된다. 참여 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월 174만~278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광주시는 참여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은보당(적응) 교육, 직무별 맞춤 교육,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조직 적응과 지역 내 진로 설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청년과 사업장의 원활한 일 경험 연계를 위해 19기 드림티(참여 사업장) 261곳을 모집했다. 참여사업장에는 한 국알프스㈜, ㈜무등기업, ㈜KBC광주방송, 한국전력거래소,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교통공사, 조선대학교 등 지역 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2월13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

(<https://gjyouthdream.com/>)에 1차 면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드림만남의 날’에 하루 이상 참여해 드림티 상담과 면접을 진행한 뒤 13일 오후 9시까지 2차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드림만남의 날’ 행사 현장에서도 신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최종 선발 결과는 2월25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광주청년일경험드림, 광주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드림티 정보, 직무 내용 등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과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수행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일경험드림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 설 대비 도축장 축산물 특별대책 추진

26일부터 2월14일까지 도축검사·위생 점검 강화

축산물 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해 할 인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명절 기간 도축물량이 평소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축산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대책기간 도축검사관은 월요일부

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30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도축검사와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도축 물량이 늘어날 경우 연장 근무를 통해 원활한 축산물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도축 전후의 철저한 도축검사 ▲구제역·소 브루셀라병·아

프리카페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 확인 ▲도축장 시설 및 출입 차량 소독 점검 ▲축산물 위생 취급 실태 확인 등이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축장 위생 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자연속의 가득매일 푸성작